

한국전쟁사 연구를 통한 전술능력 제고방안

康 壽 命*

1. 서 론
2. 전쟁사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3. 한국전쟁사 연구 및 교육실태 분석
4. 전술능력 제고방안
5. 결 론

1. 서 론

군 조직의 존재목적은 평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전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은 군 조직을 운용하는 간부의 능력에 좌우된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간부들에게 있어서 전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전장상황에서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질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이 상황이 불확실하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우연성이 가득한 전장에서 적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의 전투의 지를 파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¹⁾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쉽게 구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노력과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장의 실상을 이해한 가운데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리(戰理)를 터득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손자방법에서는 ‘용병은 적을 속이는 기만의 연속(兵者는 詭)’이라고 했으며, ‘최상의 용병법은 적의 생각이나 의도를 분쇄하는 것(伐謀)’이라고 강조했다. 용병술은 근본적으로 꾀(謀)를 지향하며, 간부는 궁극적으로 전장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통해 전승을 달성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군사서적 독서, 학문연구, 훈련참여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쟁사 연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전쟁사는 실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간부들에게 전장의 실상 파악은 물론 전투의 승패 원인을 분석하게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전쟁사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연습을 반복 숙달시킴으로써 간부들의 창의력을 근간으로 하는 전술능력²⁾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군사적 해안을 가지게 할 수 있다.

- 1) 여기서 ‘창의력’이라 함은 독창적으로 생각하고 사고과정이 유연하며 합리적인 사고능력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임. 이러한 창의력을 구비해야만 평시에는 실무에서의 부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과 우연성이 혼재된 전장에서는 적과 대처하여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여 전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 2) 여기서 ‘전술’이라 함은 군사용어사전(야교 3-0-1, 육군본부, 2006. 9)상의 용어인 ‘군단 이하의 전술계대가 전투와 교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기술과 과학’을 뜻하는 것이며, 전술능력은 이러한 전술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평택대학교 교수

전쟁사 연구의 당위성과 간부들에 대한 전쟁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사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간부들의 전술능력을 향상시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간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전쟁사 연구 및 교육방법의 보완을 통해서 간부들의 전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고,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사 연구를 중심으로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전쟁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살펴본 후 연구방법의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야전 및 학교기관에서의 한국전쟁사 연구 및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보완소요를 도출하며,

제4장에서는 2, 3장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쟁사 연구를 통한 간부들의 전술능력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쟁사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전쟁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쟁사와 관련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군사사(軍事史), 전쟁사, 전투사 등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전쟁사 연구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일부 상이한 점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쟁사와 관련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³⁾

첫째, 군사사는 전쟁과 교전 그리고 제반 군사문제와 그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이다.

둘째, 전쟁사는 군사사의 일부로서 군사사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며 직접적인 전쟁행위를 중심 주제로 한 역사이다.

셋째, 전쟁사의 연구 수준에는 용병술체계⁴⁾와 연계하여 전략적 수준의 전쟁사로부터 작전술 수준의 전역사, 전술적 수준의 전투사⁵⁾ 및 교전사로 상호 연계하여 구분한다.

(1) 전쟁사 연구목적

군 간부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평소부터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전쟁의 진리가 기록된 전쟁사를 탐독하거나 연구함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전쟁의 지식과 참상을 깨우쳐 군사적 식견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전쟁사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⁶⁾

- 전쟁의 본질과 전술의 진수 파악
- 실전의 참상이해와 인간관계 연구
- 실병지휘요체 습득
- 상황판단과 위기대처기법의 습득

3) 방종관, 『전쟁사 연구에서 전투사의 성격과 연구방법』, 대전대학교, 2004. 8. p. 20.

4) 용병술 체계는 군사용어사전(야교 3-0-1, 육군본부, 2006. 9)에 의하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통수기구로부터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의 계층적 연관관계를 말한다.

5) '전투사'란 전투, 즉 군사용어사전에 의하면 '적을 격멸하거나 일정한 지역 또는 목표물을 공격, 방어하기 위하여 적과 직접 싸우는 본래의 군사행동'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투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분야 또는 역사의 일부를 말한다.

6) 장창호, 『전사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방법』, 군사연구(육군본부, 1995), p. 28.

- 전쟁 역지책과 전쟁의 실학적 연구
- 군인의 소양과 전문자질의 향상 등

아울러 육군사관학교 정토웅 교수는 군사사(전쟁사)⁷⁾를 연구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전쟁의 본질과 양상을 이해하여 미래전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데 있다.

둘째, 군사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군사이론과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다.

셋째, 지휘관으로서 상황판단능력과 상황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넷째, 전투의 실태 및 전장에서 제반현상을 이해하고 무력전의 원인, 경과 및 결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다섯째,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군인의 자질은 전문직능, 책임관념 및 협동정신 등을 말한다.⁸⁾

전쟁사를 연구하는 또 다른 학자는 과거 전쟁 또는 전투의 중대한 국면에서 지휘관들이 취한 사고·결심·행동의 양식을 연구한다는 것이 장래의 지휘관·참모를 양성하는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비스마르크가 말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지만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는 것 같이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⁹⁾

전쟁사를 연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축소하여 군 간부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면 우선 전쟁사 연구를 통하여 전쟁의 실상을 이해하고 전장상황에서

7) 정토웅 교수는 「군사사 연구방법론」(『군사』 25호, 국방군사연구소, 1991, pp. 6, 20)에서 군사사란 ‘전쟁과 교전, 그리고 제반군사문제와 이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적 제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라고 하며, 군사사는 ‘전쟁사’와 ‘군사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전쟁사의 개념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함.

8) 정토웅, 「군사사 연구 방법론」, 『군사』 25호(국방군사연구소, 1991), pp. 27-28.

9) 이종학,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한 전사연구」, 『전사』 3호(국방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64-65.

지휘관 및 참모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원리들을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되게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전쟁사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간부들로 하여금 전승보장을 위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 전쟁사 연구방법

전쟁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개괄적 연구방법과 집중적 연구방법이 있으며, 문헌조사와 독서방법, 분석 및 평가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전쟁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전쟁사의 일반적인 연구방법과 각 학자들이 주장하는 연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1) 연구방법

일반적 연구방법에는 개괄적 연구방법과 집중적 연구방법이 있다.

개괄적 연구방법은 여러 전쟁과 전역 및 전투를 광범위하게 개관하면서 연구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전쟁상황을 너무 단순화한다는 약점은 있으나, 여러 전투를 취급하여 많은 경험적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집중적 연구방법은 몇 개의 전역과 전투를 한정적으로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제한된 폭의 지식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연구목적에 맞는 정밀분석을 통해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에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사의 연구에서 어느 방법이 낫다고 할 수 없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각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연구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다.¹⁰⁾

10) 정토웅, 전계서, pp. 36-41.

일반적인 연구방법 외에 전쟁사 연구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첫째, 군사사(전쟁사)는 폭넓게, 깊이 있게, 그리고 특히 상황관계를 중시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워드(Michael Howard) 교수에 의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군사사(전쟁사) 연구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전쟁의 본질과 사회구성에 대한 전쟁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특히 직업군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¹⁾

둘째, 효율적인 독서에 의해서 군사사를 연구해야 하며, 특히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전장의 실상과 전쟁의 원리와 원칙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¹²⁾

셋째, 전쟁사 연구는 전사의 심오한 진수와 교훈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원리와 원칙, 다양한 전술준칙을 전쟁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¹³⁾ 이를 위하여 전사서적을 탐독해야 하며,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자기 지식으로 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현 연구방법 분석

군 간부들이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 연구방법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부의 전장 이해 및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원칙을 터득하는 데는 개괄적 연구방법과 집중적 연구방법이 모두 필요하다.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 전투국면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부의 창의력 배양면에서 볼 때는 집중적 연구를 통해서 전장에서의 승리를 얻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전쟁사 연구방법이 전쟁 또는 전투의 분석을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쟁사 연구가 전쟁의 원인 및 결과, 전

쟁의 승패요인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 간부들이 전장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전승을 보장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에는 제한이 많다.

셋째, 문헌조사, 전사자료 활용 등과 같은 독서에 의존한 전쟁사 연구는 간부들의 흥미를 잃게 하고 동기유발을 제한시킬 수 있다. 즉, 야전부대 간부들이 개인의 기본업무 수행과 병행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독서를 통한 전쟁사 연구를 하기에는 그만큼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3) 전쟁사 연구방법의 보완방향

전쟁사 연구방법의 보완방향은 연구기관에서 적용하는 연구중심방법보다는 야전 간부들이 “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쟁사 연구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과 전쟁발발 원인, 경과, 그 결과를 망라하는 개괄적 접근방법에 의한 전사공부도 필요하지만 특히 간부의 전장 상황판단 및 조치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중적 연구방법, 즉 전투사를 깊이 연구하여 그 속에서 원리를 터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투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쟁자료 준비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전사서적을 탐독하고 많은 사례를 연구하여 자기지식화하는 방법이 전사연구의 최적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간부가 전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좋은 전쟁사 연구방법은 그 전장의 상황에 몰입하게 하여 그 속에서 답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전장의 실상과 사고』 중(中)권(장창호 편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¹⁴⁾

11) 상계서, p. 44.

12) 상계서, pp. 44-50.

13) 장창호, 전계서, pp. 31-36.

14) 장창호 편역, 『전장의 실상과 사고 중권(불멸의 훈련 철학)』(병학사, 1982. 5), pp. 102-106.

“간부 이하 모두가 상황 속의 인간이 되면, 거기에는 진지하게 행동하고 전력을 다해서 상대편을 쓰러뜨릴 분위기가 조성되어 훈련 성과가 현저히 향상된다는 것이다. -중략- 훈련지도에 필요한 적절한 전사와 전례를 찾아 내어 전술원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전황의 구성 및 훈련상의 요점을 적절하게 정하여 훈련을 유도하여야 한다.”

실제 전장상황을 훈련상황으로 구성해서 간부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 몰입하게 하여 훈련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전장의 실상을 체험하고, 전장상황 속에서의 창의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전쟁사 연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책을 읽어서 배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전사 및 전례를 훈련과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흥미있게 전사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상화 기능, 애니메이션 기능 등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전사연구에 접목하면 전장의 실상을 시각화하여 실전감 있는 전장상황을 훈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사를 연구하다보면 가장 힘든 것이 전장 상황을 상황도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는 상황의 핵심을 상황도의 평면에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실전감 있게 전장의 상황을 묘사한다면 실효성 있는 전쟁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3. 한국전쟁사 연구 및 교육실태 분석

전쟁사 연구를 통해 간부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타 전쟁사보다 한국전쟁사에 대한 연구가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지형, 기상 등 동일한 작전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을 대상으로 적 기도

분석과 적 전술에 대응한 아군의 전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전쟁사와 관련된 연구자료들을 고찰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간부들에 대한 전쟁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완소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전쟁사 연구현황

한국전쟁사에 대한 군에서의 연구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문서공개로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일반학자들까지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는 역사서는 한국전쟁사(11권),¹⁵⁾ 한국전쟁사 요약본,¹⁶⁾ 한국전쟁(상·중·하),¹⁷⁾ 6·25전쟁사(3집)¹⁸⁾ 등 다수의 책들이 연구되어 이미 발간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본 항에서는 간부의 전술능력 제고 차원에서 집중적인 연구방법을 위한 전투사 연구산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군단급 이하 계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발간, 1971~1980.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발간, 1986. 11.

17) 국방부 군사연구소 발간, 1995~1997.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발간, 2004~2006.

전투사를 발간하였다. 이는 한국전쟁 작전진행 단계별로 다부동전투, 장진호전투, 38선 초기전투, 용문산전투, 인천상륙작전, 신령·영천전투, 백마고지전투 등 27개의 핵심전투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전투에 대하여 전투배경으로부터 일반상황, 작전계획, 전투경과 순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작전경과 내용면에서는 기존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 중에서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투사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적의 교리 및 전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분석 및 교훈분야에 대한 내용도 미흡하다. 또한 상황도 설명면에서 전체 전투경과를 한 개의 상황도에 표시하는 등 상황도의 이해에 곤란한 점이 있다.

2) 육군본부

육군본부에서는 한국전쟁사와 관련하여 전장사례연구, 전례집, 소부대전례집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장사례연구 1~3집은 연대급 이하 제대의 전장사례를 각각 100개씩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고 각 사례별 구성은 개요, 상황, 작전경과, 교훈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장사례연구 제4집은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격작전, 방어작전 등 50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각 사례는 일반상황, 작전지역의 특징, 피아상황, 작전경과, 작전결과, 작전분석 및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육군에서는 『맞춤형 소부대전례』¹⁹⁾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는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를 대상으로 공격, 방어, 지연작전 등 유형별로 25개의 전례를 제시하였다. 이해하기 쉽고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요, 상황, 작전경과, 전훈분석 순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전장사례연구는 당시의 작전환경과 작전경과 등을 전술 제원칙의 적용면에서 분석하였고 승패요인과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작전 분석 및 교훈 도출 시에 대대급 이하 제대의 단편적인 내용만이 제시되

는 미흡점이 있고 적의 교리 및 전술면에서의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전계획과 실시의 연계된 분석이 부족한 점 등을 분석할 수 있다.

3) 육군대학

육군대학에서 발간한 교육참고(35-1, 2002. 6)는 CD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전쟁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을 초기작전으로부터 지연작전, 낙동강 방어선 작전, 인천상륙작전, 반격작전, 중공군 1·2차 공세, 1951년 전반기 작전, 휴전회담과 군사작전으로 분류한 총 76개의 전투가 포함되어 있다. 각 전투별로는 개요, 상황, 북한군 작전 지도, 아군 작전계획, 작전 경과, 분석으로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투사 연구에 효과적인 자료이다.

4) 보완소요

위의 자료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전투사 내용들이 전투경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분석 및 교훈분야에 대한 내용이 빈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전투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연구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료들이 활용도 면에서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최근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포함하여 한국전쟁사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이때 상황도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전장상황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사 자료 발전에 대한 야전요구를 수렴하여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전사연구가 주로 보병 및 전투부대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과별, 기능별 부대들에 대한 전투사도 발굴하여 활용해야 한다.

19) 육군본부, 『맞춤형 소부대전례』, 2007. 5.

셋째, 수요자²⁰⁾의 입장에서 필요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활용도가 높은 전사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투사 또는 전례연구집의 명목으로 단순히 독서위주의 책자 형태로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사를 활용하여 간부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전간부 교육시와 학교기관에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사책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전투사를 참고하여 전술 문제집²¹⁾ 형태의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

(2) 한국전쟁사 교육 실태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전쟁사 교육방안에 대한 논문들과 일부 학교기관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전쟁사에 대한 학교 및 야전교육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소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1) 학교교육실태

육군대학 정규과정의 한국전쟁사 과목의 목표 및 중점, 교과시간 편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²²⁾

20) 여기서 '수요자'라 함은 전투사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군의 모든 간부를 말하며, 최근 육군 본부에서 사용한 '수요자 중심의 6·25전쟁사 연구방안' 등의 표현을 참고하였다.

21) 여기서 '전술문제집'이라 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필자가 예를 들어 제시한 책자 형태이다. 이것은 주요 전투사의 실제 상황을 인용하여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여 독자가 생각해 보게 한다. 그 후 그 당시 지휘관 및 참모의 조치사항을 제시해주고 '이런 상황에서의 전술원칙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해주는 형태의 책을 말한다. 즉, 종전의 전사책이 하나의 참고서 성격이라면 이것은 문제집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2) 위의 자료는 육군대학 '09년도 교과편성 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임.

<표 1> 한국전쟁사 과목편성

■ 과목 목표 및 중점

목 표	주요 전례분석을 통한 교리체득 및 창의적인 실전적용 능력 배양
중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례분석을 통한 간접경험 체득 • 전례를 교리와의 연계성 측면 분석 • 창의적인 실전 적용능력 배양

■ 세부과제 편성

과 제	요구사항/ 토의관점	시간
1. 지연작전 / 낙동강 방어선 작전	• 6·25전쟁 시 지연작전 수행과정과 낙동강방어작전 분석	8H
2. 인천상륙작전 / 반격작전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을 작전술 역할 측면에서 분석	8H
3. 북진작전	• 북진작전의 결정과정과 작전계획 수립 / 수행 측면 분석	8H
4. 중공군 공세 / 유엔군 반격작전	• 중공군 공세 / 유엔군 반격작전을 기동전 수행 측면에서 분석	8H
5. 정전협상 / 전쟁교훈 분석	• 정전협상 / 6·25전쟁 교훈 분석	8H

상기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과목시간에 대한 분석이다. 한국전쟁사 과목의 목표는 주요전례분석을 통한 교리체득 및 창의적인 실전적용능력 배양이다. 과목에 할당된 시간은 40시간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절대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과목내용면에서는 6·25전쟁의 주요전례를 분석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세부과제 편성상에서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작전을 하나의 과제로 통합하여 학습하는 점 등을 볼 때 과제편성의 보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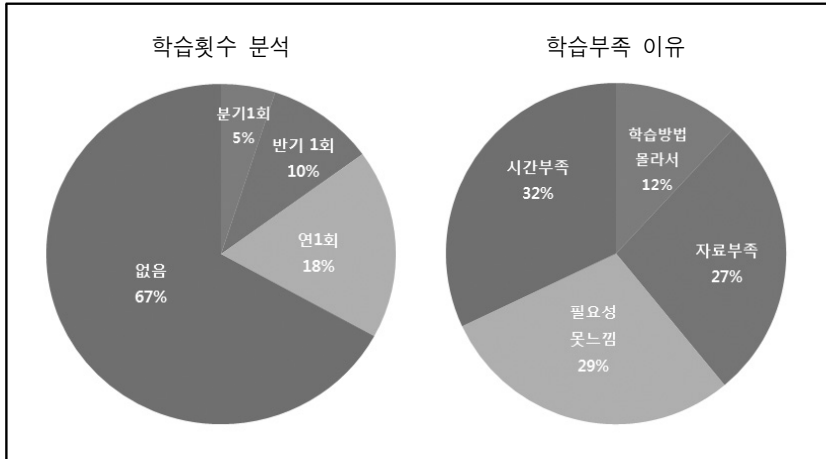
셋째,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위주의 교육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사연구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즉 전투상황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조치를 하는 전사를 활용한 도상 연

습과 이를 토대로 실제 전사지역을 답사하여 그때의 전투 상황을 판단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육군대학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쟁 주요전투에 대한 전사용용 실습과 전적지 답사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시간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야전부대 실태

최근 들어 야전의 소부대 전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소부대 전례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며 전쟁사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쟁사를 학습하는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표 2>는 야전부대의 전쟁사 학습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²³⁾

<표 2> 야전부대 전쟁사 학습실태 : 설문결과 분석²⁴⁾



23) 임종득, 『전쟁사 교육 발전방안』, 『군평지』 348호(육군대학, 2000. 11), pp. 174-175.
 24) <표 2>의 자료는 위의 논문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육대 학생장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 결과를 재인용한 것임.

첫째, 학습횟수를 분석해보면 야전부대에서 전쟁사 학습을 경험한 바가 많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전쟁사 학습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연 1회, 반기 1회 등 간헐적으로 간부교육시간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학습부족에 대한 이유면에서 시간부족이라는 것은 야전의 실정상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전쟁사 연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점', '자료의 부족', '학습방법을 몰라서' 등은 사실 간부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쟁사 학습방법 및 교육체계가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부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전·평시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쟁사를 통해서 그 진리를 터득하고 전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우리의 여건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전쟁사, 전례이용 간부교육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3) 보완소요

간부의 전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및 야전부대의 한국전쟁사 교육에 대한 보완소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 과목시간과 교육내용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간부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사에 대한 교육시간이 충분히 할당되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육내용면에서 한국전쟁사의 초기전투로부터 정전 전까지의 주요전투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과목 및 과제가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방법면에서 전훈 분석 위주의 학습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전사의 주요 국면을 연구하고 전투현장에서 직접 상황조치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학습으로의 보완이다. 즉, 도상연구뿐만 아니라 전적지 답사 및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당시 지휘관 및 참모로서 전술적 조치에 대한 간접 경험으로 자신의 전술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야전부대에서 전쟁사 연구를 활용한 간부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야전에서는 전쟁사 연구에 대한 여건이 불비하고 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이에 해 부대의 전·평시 임무와 부대의 특성을 고려한 필수 간부교육 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한국전쟁의 주요전례와 연계한 간부교육 방법이 요구된다.

예로서 해 부대가 수행할 임무와 유사한 한국전쟁 사례를 상황 및 문제로 구성하여 간부들에게 부여하고 실습 후에는 지휘관 주관하 강평을 실시함으로써 간부교육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간부들은 전쟁사 연구를 통한 간접적인 전장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술적 식견과 상황조치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상급부대에서 제공할 시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4. 전술능력 제고방안

전술능력²⁵⁾은 군 간부가 급변하는 전장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승리를 쟁취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전술능력의 핵심은 전장에서 제작전요소를 활용하여 적을 압도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능력인 창의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독단활용능력,²⁶⁾ 아

25) 여기서 '전술능력'이라 함은 앞의 각주 2)의 내용과 같은 개념이며, 이를 부연 설명하면 군의 간부들이 전·평시 임무달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자기 부대에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전의 계획, 준비단계로부터 실시간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요구되는 능력임. 필자는 전술능력의 핵심을 창의력, 독단활용능력, 지형안 구비 등으로 고려하였음.

26) 여기서 '독단활용'이란 군사용어사전상의 용어로서 임무수행 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

울러 지형안(地形眼)²⁷⁾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에 치러진 전쟁을 연구하고, 실천적인 교리나 교훈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전장상황과 같은 양상 속에서 그 상황에 부합되는 전술원칙 및 준칙들을 적용하여 상황 및 문제를 해결해 보는 학습을 통해서 창의력이 배양되고 적을 능가하는 전술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전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야전부대에서는 전쟁사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러한 학습방법을 위한 교육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창의력 향상 학습방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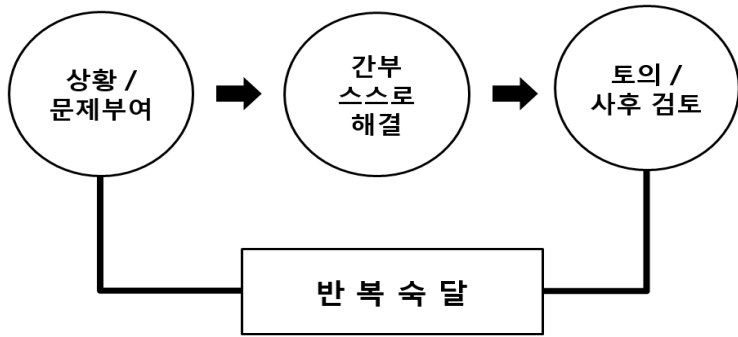
간부들의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방법은 실전상황과 같은 문제들을 간부 스스로 해결해보고 이를 토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평소 전사관련 독서 또는 훈련경험 등을 통해서 전술의 원준칙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습방법의 보완 적용이 필요하다. 습득된 원리원칙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간부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차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를 구성하여 간부들에게 제시하고 간부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후, 그 결과를 토의 및 사후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 계획수립 당시의 상황판단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지만, 임무부여자의 재결심을 받을 수 없을 때 임무부여자의 의도에 부합된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심하여 실시하는 행동을 말한다.

27) 여기서 '지형안'이라 함은 전장의 주요요소인 지형을 활용하여 임무달성에 기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상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라고 판단된다.

<표 3>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학습방법



첫째, 상황 및 문제는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전투사에서 발췌하여 구성한다. 장차전에서 간부들의 임무수행 필수과제들을 위주로 부대의 임무나 실정에 부합되게 과제소요를 도출하여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한다.

둘째, 간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부여된 문제를 간부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간부는 이미 터득한 전술지식을 포함하여 추가 요구되는 정보 및 지식 등의 연구 등을 거쳐 부여된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토의 및 사후검토 단계에서는 간부들이 해결한 결과를 토대로 야전부대에서는 지휘관 중심으로, 학교기관에서는 교관이 주관하여 상호 토의 및 강평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상황 및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간부들은 상황을 해결하는 노하우(Know-How)를 습득하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사후검토하는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부하와 지휘관 간의 전술관의 공유를 통해 지휘관의 의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작전이 가능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학습방법은 학교기관에서나 야전 간부교육 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실전감 있는 상황 및 문제 구성 방법

1) 상황 및 문제의 구비요건

실전감 있는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의 구성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입력요소들이 망라되어야 하며,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항과 간부의 창의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실전감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황은 북한군 전술 교리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묘사되어야 하며, 작전환경에 부합되도록 급박하고 동태적인 상황으로 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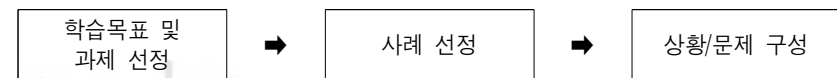
셋째, 문제는 간부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야 하며 문제가 단순하여 바로 답이 도출될 수 있는, 즉 사고를 요하지 않는 문제를 지양하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해야 한다.

2) 상황 및 문제구성 절차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실전적인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과제 선정 등 학습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학습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 전투사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중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선정된 사례들을 검토하고 상황구성상 미흡한 분야들을 보완하면서 상황 및 문제를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항에서 제시된 구비요건들을 갖추게 하면서 상황 및 문제를 보완하여 완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 4> 상황/문제 구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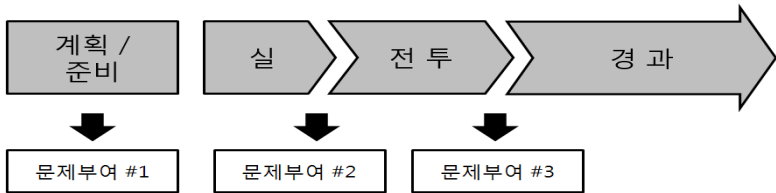


3) 상황 및 문제구성 방법

실전감 있는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투사례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상황을 상정하여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전투 사례를 활용하는 것처럼 정확한 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 및 문제 구성을 위한 방법은 <표 5>와 같이 실전투 경과(작전의 진행단계 과정)를 계획수립 및 작전준비 단계와 작전실시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상황구성은 실 전투사례를 토대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간부들이 해결해야 할 내용을 문제로 부여한다.

<표 5> 상황 및 문제부여



4) 상황 및 문제 구성 절차에 의한 “예”

위에서 제시한 상황 및 문제 구성 절차에 의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습목표 및 과제 선정이다. 야전부대에서 간부들의 전술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목표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표 6> 학습 목표 및 과제 “예”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부들의 실전적 전술조치능력 향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장 또는 작전과장으로서 작전계획 수립 보병연대장으로서 실시간 상황조치 적의 공격기세를 좌절 및 지연시키는 준칙 이해

둘째, 사례를 선정한다. 연대장 및 작전과장으로서 작전계획 수립과 실시간 상황조치를 위한 상황으로 낙동강 돌출부 지구 전투사를 선정하였고, 적의 공격기세를 좌절시키고 지연시키는 준칙 이해를 위해 중공군 춘계 2차 공세 사례를 선정했다.

셋째,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한다.

① 연대장 또는 연대 작전과장으로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상황과 문제이다.

낙동강 돌출부 지구 전투사를 참고하여 당시 미 제24사단의 상황과 적 제4사단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상급부대의 정보판단에 기초한 기상제원, 중요지형지물 등 연대 작전계획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제공한다. 이 상황에서 미 34연대 연대장 또는 작전과장으로서 연대 기동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및 토의할 준비를 하라.

② 제34연대장으로 현 상황에서 요망되는 실시간 상황조치와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는 상황과 문제이다.

상기 작전의 진행과정 중에 몇 개의 중요한 국면의 상황을 묘사하여 문제를 부여한다. 낙동강 돌출부 작전이 진행되면서 미 34연대 지역이 적의 침투식 공격에 의해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국면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앞부분 생략) 오항나루터(DP471249)에 도하한 적 800여 명은 미 34연대의 I중대 L중대의 간격으로 침투하여 영산-낙동 간의 도로가 교차하는 계곡을 전진하였으며, 적은 고지 위의 미군기지는 공격하지 않고 쇠실에 있는 4.2” 박격포 진지(DP482222)를 격파하고, 인접한 제3대대의 지휘소를 기습함으로써 지휘소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중략- 연대장은 02:00에 이 상황을 최초로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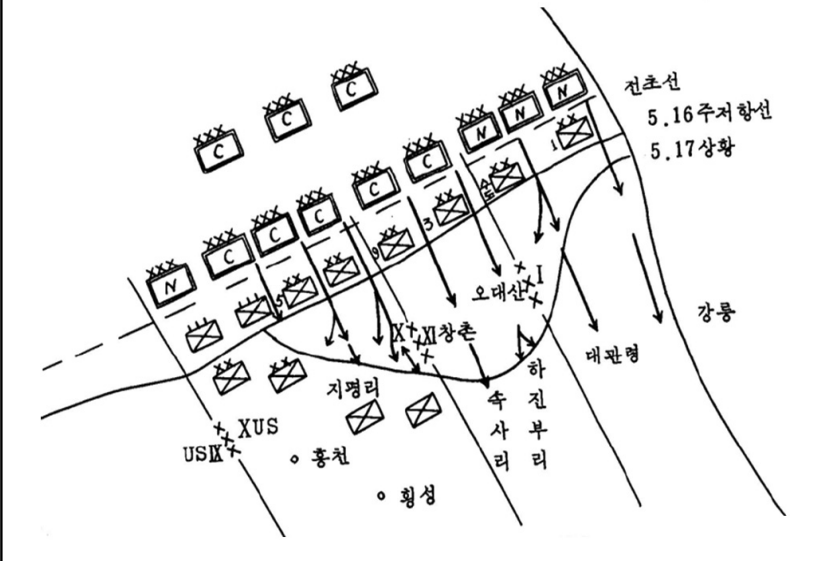
③ 적의 공격에 의하여 예상보다 큰 돌파구가 형성되었을 때 적의 공격기세를 좌절시키고 지연시키는 방어작전 준칙을 도출하라는 상황과 문제이다.

<표 7> 상황 및 문제구성 “예”(중공군 춘계 2차 공세)

■ 상황

- 1951년 5월 16일부터 중공군은 주공을 동부의 한국군 정면에 지향하여 대규모 돌파시도
- 1951년 5월 17일 야간까지의 군단상황 요약
 - 적은 공격개시 후 30시간인 현재, 군단 정면은 폭 40km, 중심 20km인 대돌파구가 형성(요도 1 참조)
 - 좌익의 미 제1해병사단은 적과 교전 중이나 현전선 유지
 - 중앙의 미 제2사단은 전 정면에 걸쳐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고, 상황은 극히 불리하나, 버커고지는 지탱하고 있음
 - 우익인 국군 제5, 7사단과 군단 우인접 한국 제3군단은 조직적인 전투력 상실

※ 요도 1



■ 문제 :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위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중공군 춘계 2차공세의 상황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의 공격양상을 묘사하였다. 실제 전장에서 당면하게 될 급박한 상황, 즉 적이 공격을 개시한 지 30시간 만에 군단 정면에 폭 40km와 정면 20km의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된 상황을 묘사했다. 아울러 상·하 인접부대의 상황을 실전감 있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을 통한 원·준칙 이해방법은 단순한 숙지보다는 전술적 이해를 심화시킨다.

(3) 학습여건 보장

실전적인 학습내용을 구성하고 학습방법을 보완하여 간부들의 전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여건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앞항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방법과 내용에 대한 간부들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학교교육 및 야전 간부교육에 반영되어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각 기관에서는 야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자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이를 야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실전적인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투사 전례의 구체화를 비롯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전투사를 활용한 표준적인 상황 및 문제집의 발간 배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기관에서는 간부들의 실질적인 전술능력배양 측면에서 한국전쟁사의 교육내용 및 시간이 과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전술학 등의 과목에서 한국전쟁사례를 활용하여 실전적인 상황 및 문제로 구성된 교육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 아울러 야전부대에서의 간부교육에서 실전적인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하여 간부들이 해결하게 하고 이를 지휘관과 함께 토의 및 강평하는 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기타 발전방안

기타 발전방안으로 먼저 간부 개인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 상황조치 모델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야전부대는 제대별, 기능별 전투지휘훈련을 통해 지휘관 및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간부 개인의 전술 능력 개발을 위한 연습 모델은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에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부대 제원 및 지형 DB를 주요 전례의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축한다면 보다 실전감 있는 연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간부들이 작전계획수립부터 작전실시까지 전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개인의 전술조치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과 국면을 이용하여 반복 숙달하고 사후검토과정을 통해 환류한다면 효과는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다음, 전투사를 근거로 한 영화를 제작하는 방안이다. 잘 연구된 전투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전장의 교훈을 담아서 보고 느끼며, 전장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간부들이 시청한 후 각종 주제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간부의 전술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사 연구 및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쟁사 연구현황과 교육실태를 분석하여 전술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쟁사 연구방법의 보완을 통하여 간부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전쟁사 중에서 주요 전투사례를 활용하여 실전감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장 실상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실전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전쟁사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야전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전투사 전례와 관련된 전쟁자료들이 부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야전요구를 수렴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전쟁사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전사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한국전쟁사 교육 중 학교교육을 통해 전술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과목시간과 과제편성을 재검토하여 보완해야 하며, 특히 교육방법 면에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훈도출위주의 학습에서 한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전투사의 전례를 활용하여 계획수립부터 중요 국면에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하며, 지형 답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또한 야전 간부교육도 위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시 간부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시 임무의 성공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전쟁사 연구를 통한 전술능력 제고방안의 주요 요소로서 학습방법의 보완이다. 종전의 전사 탐독과 전훈분석위주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전투사례의 상황을 인용 실전감 있는 상황 및 문제를 구성한다. 이를 간부들에게 부여하고 간부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토의 및 강평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런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기관과 야전부대에서는 실전감 있는 상황 및 문제를 만들어서 교육해야 하며, 전쟁사 관련 기관도 앞으로 전장사례 전술문제집을 제작하여 간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학습여건의 보장을 위해서 우선 실전적인 전쟁사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간부들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며, 위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함께 무기체계 등의 발달로 장차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전투사를 활용한 간부 개인의 상황판단 및 조치모델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실전감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발전되어야 한다.

손자는 일찍이 어느 나라 간부가 더 유능한가에 따라 전쟁의 승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한국전쟁 전투사례에 대한 창의적인 학습방법과 교육체계를 통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전술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차대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원고투고일 : 2009. 3. 14, 심사수정일 : 2009. 4. 22,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 용병술, 전술능력, 한국전쟁사, 전투사, 전쟁사 연구방법, 전쟁사 교육 방법, 전장사례연구, 창의력 향상 학습방법, 상황 및 문제 구성방법, 상황 및 문제구성 절차

<ABSTRACT>

A Research on How to Improve Tactical Operational Abilities through Case Studies on the Korean War History

Kang, Su-myung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how to upbringing competent leaders who can win in the war. Leaders should be equipped with the abiliti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effective plans to defeat the enemy in changing circumstances. The ability for winning in war needs the tactical operational abilities based upon creativity. To acquire those abilities,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effective learning are needed.

The studies on war history will help us find the solutions to improvement of tactical operational abilities. Creativity of leaders can be improved through effective and systematic learning. For this, the situations and cases which can happen in real wars ought to be offered to leaders who have to solve. After that, the processes of discussion and post-review on each solutions led by commanders or instructors should be followed.

During these processes of dealing with various situations and solving different cases, leaders can improve their creativity. In these processes, the examples derived from the real historical battles will be very useful. Especially, we can shape good examples from the cases of the Korean War and use them for more effective learning of Korean military leaders.

The procedures of constructing the cases from real war histories are as follows: first, to select relevant cases for learning purposes; second, to put some important points for leaders to take measures against with their

creativity into the cases chosen and reviewed in detail: and finally, to impose the cases upon the leaders in the form of situations and questions constructed.

We can far better improve tactical operational abilities of leaders, if the case studies on real wars, as a means of teaching materials, are added to the previous method of just reading the stories on victories in wars. Furthermore, more scientific methods need to be applied to the studies on war history.

Key Words : Art of Employment the Troops, Tactical Operational Ability, the Korean War History, Combat History, Research of Method on War History, Method of Education on War History, Research on War Case, Learning Skills to Improve Creativity, Method of Making the Cases, Process of Making the Cases